

2011년 10월 1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송양희 정보통신표준과장(02-509-7262), 양희찬 연구사(7263)

국산 『생체인식 정보보호기술』 국제표준 채택 완료

- 전자여권 및 금융거래 관련 생체인식제품 수출 기반 마련 -

□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정보보안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(ISO/IEC JTC1/SC27)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보호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.

※ 생체인식 기술 : 지문·얼굴·홍채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나 서명·음성과 같은 행동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개인을 인식하는 기법

□ 이번에 승인된 『생체인식 정보보호기술』은 지문, 얼굴,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, 저장, 전달, 폐기 시 정보보호기술을 정의한 것으로,

○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인증 뿐만 아니라,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, 전자여권을 통한 출입국 관리서비스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,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없어 국제적인 적용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. 그러나,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국제표준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2010년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(KISIA)에서 발표한 ‘2009년 국내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’에 따르면, 생체인식제품의 2009년 매출액은 733억원으로 2008년 매출액 591억원에 비해 141억원(23.9%) 증가하였으며, 2014년에는 1,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

○ 또한, ‘11.9월 말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와 함께 중요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보호기준이 마련됨으로써,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.

□ 동 생체인식 정보보호 국제표준은 충북대학교(전명근 교수)와 포항공과대학교(이필중 교수),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서종렬) 등 산·학·연·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다.

□ 기술표준원은 손금인식, 위조지문 탐지기술 등 국내의 앞선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

○ 향후 국산 생체인식 기술이 산업전반(보안, 보건의료, 교통, 스마트 그리드, 문화서비스 분야 등)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·학·연을 대상으로 기술표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생체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.

□ 국제표준명 : 생체인식 정보보호/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

* 표준번호 : ISO/IEC 24745

□ 주요 내용

- 지문, 얼굴영상 등 생체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**암호 사용 방법** 및 생체인식 정보의 **침해위협 대응기법** 등을 정의
- 생체인식 정보와 개인식별 정보의 **결합방식**을 정의하고, 결합된 정보의 **무결성** 및 **기밀성** 보장을 위한 **암호기술**
 - * **무결성** : 정보의 정확한 전달 및 악의적 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의한 정보의 변경, 삭제 등을 차단하는 것
 - * **기밀성** : 정보의 비밀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,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
- 수집, 저장, 전달, 폐기 등 생체인식 정보처리과정에 따른 **침해위협**을 정의하고 **대응 및 관리방안** 제시
- 한번 유출되면 새롭게 발급 받을 수 없는 생체인식 정보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**재발급 가능한 생체인식 정보보호기술**

□ 활용분야

- 생체인식을 이용한 개인식별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
- 전자 여권 등 **출입통제시스템**, 보안토큰 및 현금자동지급기 등 **전자금융 분야**, 원격 진료 등 **의료정보 분야**, 생체인식 키(열쇠) 등 **지능형 자동차 분야**, 스마트폰 암호 등 **모바일 정보기기 분야**